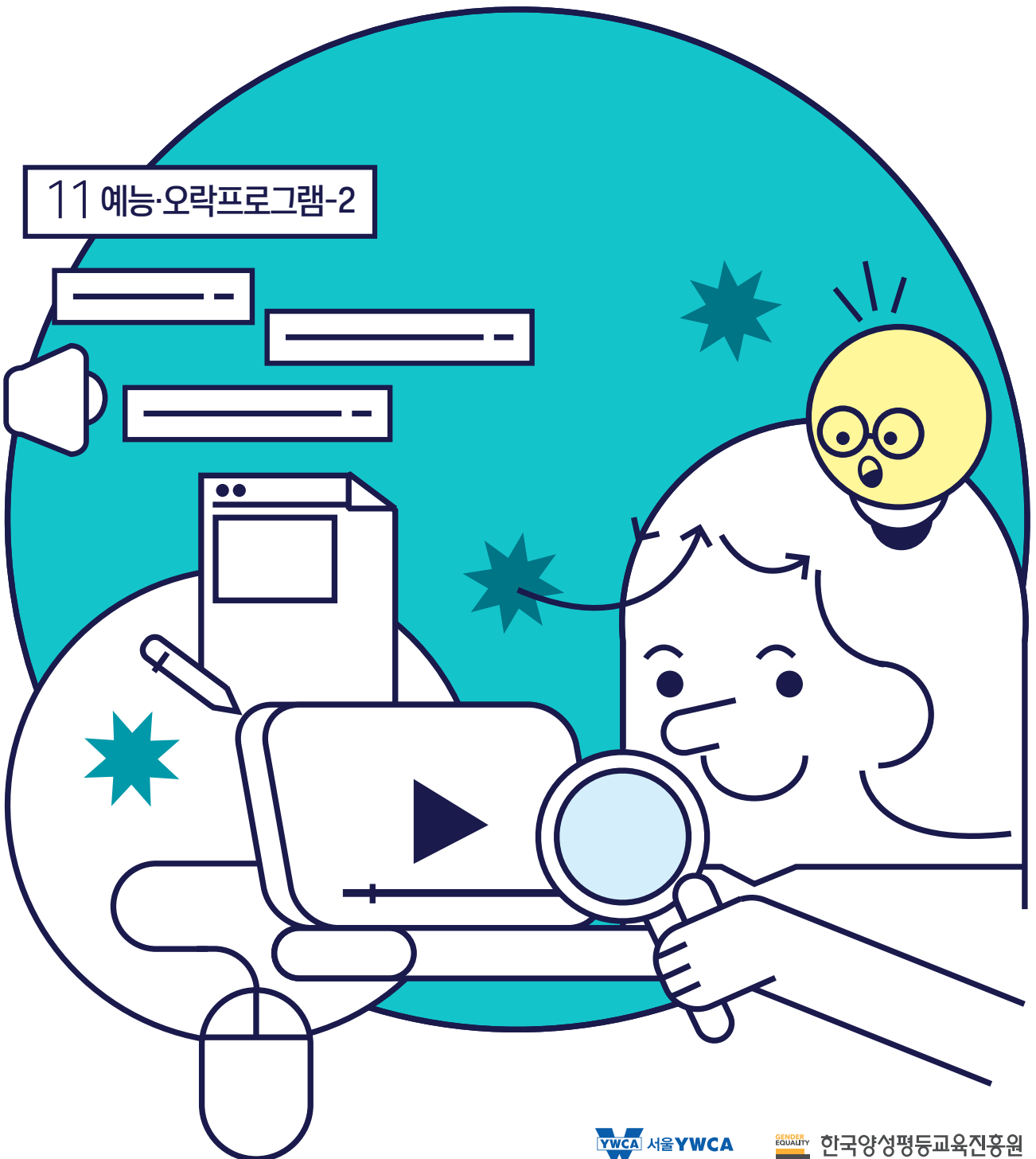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11 예능·오락프로그램-2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CONTENTS

<b>06</b>	들어가며
<b>07</b>	결과분석
<b>07</b>	양적분석
<b>12</b>	질적분석 : 성평등적 사례
<b>13</b>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b>18</b>	나가며
<b>19</b>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예능·오락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2020. 11. 04 - 11. 22

모니터링 대상

## 12

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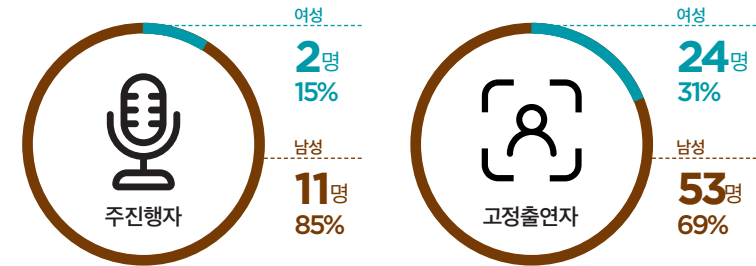
방영분 중 각 3회분<sup>1</sup>

\*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지만,  
월~금까지 주 5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 요원이 임의로 모니터링 기간 내 3회분을 선정했다.  
\* 모니터링 기간 내 결방 및 프로그램 개편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방영 회차를 모니터링에 포함하였다.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 :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tvN, Mnet  
모니터링 인원 : 6명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지상파	MBC	복면가왕	일/18:20
	MBC	나혼자산다	금/23:10
	SBS	런닝맨	일/17:00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수/22:40
	MBC	놀면 뭐하니?	토/18:30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21:15
종합편성 채널	JTBC	히든싱어 6	금/21:00
	JTBC	아는 형님	토/21:00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목/22:00
케이블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마켓	토/19:40
	Mnet	쇼미더머니 9	금/23:00
	tvN	신서유기 8	금/21:10

<sup>1</sup>  
<히든싱어6>는 모니터링 기간  
내 중영되어, 3회분 모니터링을  
위해 10월 30일 자 방송분까지  
모니터링함.



# 01 들어가며

이번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http://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 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조회 기준) 상위 12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V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시청자 버즈 상위 12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지상파 6개, 종합편성채널 3개, 케이블 3개의 채널에 분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 02 결과분석

## 1 출연자 성비

12개의 예능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36.2%(140명), 남성 63.8%(247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남성 출연자가 다수 등장하는 <쇼미더머니 9>을 제외하더라도 여성이 41.2%의 비율을 차지해, 여전히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	복면가왕	20	22
2	나혼자산다	5	9
3	런닝맨	7	11
4	백종원의 골목식당	6	9
5	놀면 뭐하니?	21	26
6	슈퍼맨이 돌아왔다	18	27
7	히든싱어 6	42	38
8	아는 형님	6	17
9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11	20
10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마켓	3	12
11	쇼미더머니 9	1	49
12	신서유기 8	0	7
합계		140(36.2%)	247(63.8%)

지난 5년간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분석 결과, 20-30대 여성이 다수 출연했던 <내일은 미스트롯>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2019년 3월을 제외하고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서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선정방식과 수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여성 출연자 성비는 평균 40%가 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양적 분석 시 성별을 지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복 편성되는 경우(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 남성 트로트 가수/ 여성 트로트 가수 등) 특정 프로그램이 성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외하였을 때에도 성비불균형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 따라서 성별을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단순한 성비 증감이라고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래 각 성별 역할을 함께 고려해 예능 속 성비 재현을 이해해야 한다.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월	여성(명)	남성(명)	합계(명)
2016년	8월	181(39.3%)	280(60.7%)	461
	9월	148(33.7%)	291(66.3%)	439
2017년	3월	180(38.5%)	287(61.5%)	467
	7월	159(38.7%)	252(61.3%)	411
2018년	3월	140(35.4%)	256(64.6%)	396
	7월	149(36.8%)	256(63.2%)	405
2019년	3월	250(42.1%)	344(57.9%)	594
	8월	105(29.5%)	251(70.5%)	356
2020년	6월	140(35.9%)	250(64.1%)	390
	11월	140(36.2%)	247(63.8%)	387
평균		159(37%)	271(63%)	430

##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20대(30.5%)가 가장 많았고, 30대(26.6%)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9>에 출연한 참가자 대부분 20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20대 남성(75명) 다음으로 30대 남성(71명), 40대 남성(49명, 12.7%)이 뒤를 이었다. <쇼미더머니 9>을 제외하면 전체 출연자 중 30대 남성이 62명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은 40대 남성이었다. 40대의 성비 차이는 2.4배 정도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인원	25 (6.5%)	21 (5.4%)	118 (30.5%)	103 (26.6%)	70 (18.1%)	33 (8.5%)	15 (3.9%)	1 (0.3%)	1 (0.3%)	387 (100.0%)
여성 (전체%)	13 (3.4%)	12 (3.1%)	43 (11.1%)	32 (8.3%)	21 (5.4%)	11 (2.8%)	7 (1.8%)	1 (0.3%)	0 (0%)	140 (36.2%)
남성 (전체%)	12 (3.1%)	9 (2.3%)	75 (19.4%)	71 (18.3%)	49 (12.7%)	22 (5.7%)	8 (2.1%)	0 (0%)	1 (0.3%)	247 (63.8%)

##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눈 후, 역할 비중에 따라 주진행자/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보조출연자로 구분하였다.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 주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찰 예능의 경우 진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니터링 시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 모두를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11명이었으나 여성은 2명에 그쳤다. 고정출연자의 경우 여성이 6.2%(24명), 남성이 13.7%(53명) 등장해 남성이 2.2배 더 많이 등장했다.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예능을 이끄는 진행자의 위치임을 고려하면, 2020년 11월 한국 예능 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역할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수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남성성/여성성 스테레오타입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남성일 때 남성은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위를 가지게 되고, 보조출연자/초대손님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웃음과 관련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워진다.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	보조출연자 / 초대손님	기타	합계
전체 인원	13 (3.4%)	7 (1.8%)	77 (19.9%)	282 (72.9%)	8 (2.1%)	387 (100.0%)
여성	2 (0.5%)	3 (0.8%)	24 (6.2%)	105 (27.1%)	6 (1.6%)	140 (36.2%)
남성	11 (2.8%)	4 (1.0%)	53 (13.7%)	177 (45.7%)	2 (0.5%)	247 (63.8%)

## 4 역할에 따른 성별 연령대

역할을 구분해 성별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부분은 30-50대 주진행자였다. 남성 주진행자는 같은 나이대 여성보다 5배 더 많이 등장했다. 고정출연자의 경우 2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1.7배 더 많이 등장했지만 30-50대에서는 2.4배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이 같은 성비 재현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위치에 30-50대 남성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역할별 연령대  
단위 / 명  
\*연령 '모름'으로 표시된  
남성 1명 제외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연령대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합계
역할	주진행자	0	2 (16.7%)	0	0	11 (84.6%)	0	13 (100%)
	보조진행자	1 (0.7%)	2 (1.4%)	0	0	4 (2%)	0	7 (100%)
	고정출연자	9 (11.7%)	15 (19.5%)	0	16 (20.8%)	37 (48.0%)	0	77 (100%)
	보조출연자/ 초대손님	55 (19.5%)	42 (14.9%)	8 (2.8%)	79 (28.0%)	90 (31.9%)	8 (2.8%)	282 (100%)

##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217명, 56.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눈여겨볼 직업군은 방송인/전문진행자와 운동선수였다. 남성 방송인/전문진행자는 여성보다 9배 많이 등장했고, 운동선수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더 등장했다.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5	9	10	11	13	16
여성	11	14	69	2	2	1			5
남성	23	10	148	18	1	1	1	1	3
계	34	24	217	20	3	2	1	1	8

직업 번호	17	18	19	20	21	23	24	99	계
여성	2	1	1	6	1	6	7	12	140
남성		1		5	8	5	6	16	247
계	2	2	1	11	9	11	13	28	387

※직업분류번호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 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㉔ 음악업계종사자(댄서, 작곡가 등)    ㉕ 기타\_

##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1건, 성차별적 내용은 8건으로 성평등적 내용보다 성차별적 내용이 약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4
		외모에 대한 평가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기타	1
합계	1	합계	8



## 성평등적 사례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차별적 사례

MBC **놀면 뭐하니?**

11.07(67회)-11.14(68회)



<놀면 뭐하니>의 '환불원정대' 프로젝트의 에피소드의 출연자는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로 구성되었고, 50대인 엄정화부터 20대인 화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참여했다.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무대에서 제시(은비)가 엄정화에게 “언니랑 이렇게 무대를 선다는 게 진짜 우리한테 정말 영광이에요.”라고 하자 엄정화가 “나도 영광이었어. 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라고 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디어가 여성 간의 갈등을 유독 부각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화합을 이루는 장면이 강조되어 등장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제작자 등 중요한 지위에 남성이 계속 등장하고 남성의 조력을 얻어 성공하는 여성이라는 공식이 반복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이 가진 남성 중심성은 다소 아쉬웠다. 그럼에도 해당 에피소드에서 세대를 초월하는 여성간의 협력적 관계를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었다.

##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SBS / 11.15(529회) **런닝맨**



다음 회차 예고편에 여성 게스트들의 게임 장면을 넣으며 “결코 만만치 않은 그녀들의 기싸움”이라는 자막을 넣었다. 여성들의 경쟁과 승부를 ‘기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여성들의 싸움을 예외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여성은 서로를 적대시 한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2016년, 공인 간 공격적인 의견대립을 “여성 특유의 기싸움”이라고 프레임 한 사례가 양성평등 조항 위반 사례로 심의되었다. 비슷한 경쟁구도에서 남성들의 경우 ‘기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단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JTBC / 11.06(14회) **히든싱어 6**



MC 전현무가 가수 김원준의 모창 능력자 박성일이 무대 순서를 랜덤으로 정하는 시간에 첫 무대를 자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김원준이 “역시. 내 동생 맞아. 역시. 남자다. 어, 남자야.” 하며 감탄한다. 비록 자막으로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꺼리는 첫 무대를 용기 있게 지원한 모습을 두고 ‘남자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극성, 자신감, 용기를 남성적 특성으로 고착화하는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SBS / 11.04(142회) **골목식당**



<골목식당>에서 여성 출연자가 발언할 때마다, 자막을 통해 애교스러운 행위로 그려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142회에서는 음식을 시식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적은 주먹밥 양을 보며 “어 너무 적게 주셨어.”라는 여성 출연자 발언에 자막에는 “칭 너무 적게 주셨어.”라며 여성 출연자가 하지 않은 “칭”이 붙었다.



11.18(144회)



11월 18일 방영분에도 반복되었는데 요리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며 “(재료가)없습니다.”라는 발언에 “히잉ㅠ”라는 자막이 붙었다. 여성이 아쉬워하는 표현에 “힝”이라는 수식어를 불필요하게 붙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다른 남자출연자의 발언에는 “힝”과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젊은 여성 출연자에게 애교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S2 / 11.15(356회)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함께 캠핑을 하는 회차다. 여아가 계란 먹는 것을 더 나이가 많은 남아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봐 봐 오빠가 해줄게~”라는 자막을 사용하고, 계란 까는 것을 돕기 위해 남아가 여아의 손을 잡을 때 놀란 여아가 손을 빼는 장면으로 로맨스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삽입해 둘 사이를 애정 관계처럼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친구를 사귀는 장면을 이성 친구로 틀지운 채로, 남성이 여성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이것이 로맨스의 요소라는 어른의 시각으로 프레임한 것이다.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을 자연스럽게나 좋은 일로 표현하는 것 역시 미디어에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 2 외모에 대한 평가

SBS / 11.08(528회) 런닝맨



신혼부부 콘셉트로 파트너가 된 설정 속에서 전소민이 “여보는 꿈이 뭐였어?”라고 묻자 양세찬이 “예쁜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게 꿈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전소민이 “여보는 꿈을 이뤘네?”라고 되묻자 양세찬이 “아직은 부족해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장면이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일상적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유머로 소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JTBC / 11.07(254회) 아는 형님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큰 부부와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작은 부부가 동반 출연했다. 한 부부의 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에, 출연진들은 서로 짝을 바꾸어 키가 큰 여성과 남성, 키가 작은 여성과 남성끼리 서고 “원래는 이게 맞아.”라고 말한다. 또한 키가 작은 남성 출연진에게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서 있었던 거였다’라거나, 키가 작은 남자 출연자가 발차기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방이 상체는 한 대도 안 맞겠어!”라고 말하며 자막으로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는 약점”이라 표현하는 등 작은 키를 희화화하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배가 나온 남편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자켓 단추가 떨어지며 식탁 위로 배가 쏟아진 일화를 소개하며 살이 찐 체형을 개그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 개인의 체형이나 선천적인 요소를 희화화하여 개그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조롱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지양해야한다.

###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MNET / 11.13(5회) 쇼미더머니 9



한 래퍼의 가사 속에 “I’m sorry 난 오직 국산에/ 난 오직 국산에 뽕꼬피/ 애국이 아니면 낫설지”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연자의 창작영역인 가사가 아니라, <쇼미더머니>는 욕설 등을 beep처리 하는 등, 라이브로 진행되는 회차 외에는 사후 편집본을 방영하고 있음에도 해당 가사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방송국의 편집 책임 부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국산 “야동”임은 유명한데, 일본 성인비디오를 보지 않고 국산 “야동”만 보는 것을 애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야동’임을 유머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맥락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등의 불법 촬영 대응 단체들은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이 [국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 해왔다. 따라서 방송국에서는 해당 장면을 편집을 통해 다른 가사를 내보내는 등의 대처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 4 기타

SBS / 11.08(528회) 런닝맨



허리에 긴 부채를 달아 촛불을 끄는 게임을 하는 장면이다. 제작진들이 미리 게임을 해보았을 때 게임이 남성 신체에 유리했다며, 여성 출연자들에게 핸디캡(차이를 감안한 보상 및 혜택) 주는 것을 제안한다. 몇 남성 출연자들이 “싫은데요.”라고 말하는 장면에 “남녀평등”이라는 자막이 달리고,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핸디캡을 적용하는 과정이 호의를 베풀 듯 연출된다. 얼마만큼의 핸디캡을 부여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출연자가 “이럴 거면 안 주는 게 나아!”라며 두 차례나 핸디캡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여성출연자가 남성출연자보다미션을 빠르게 성공하자 남성 출연자가 “이게 역차별이야. 잘하잖아.”라고 외친다. 결국 핸디캡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게임이 이뤄지게 된다. “남녀평등”은 성에 입각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지는 적극적 조치(극중 ‘핸디캡’)의 범위와 영역은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서 ‘남녀평등’을 기계적인 동일한 처우의 의미로 사용하다보니 ‘역차별’을 호소하는 내용이 부각되고, ‘남녀평등’의 사회적 의미를 사소하게 바라보고 다소 희화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03 나가며

지난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여성 출연자 성비는 평균 40%가 넘지 않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능을 이끌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위치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이 등장했다.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11명이었으나 여성은 2명에 그쳤다. 고정출연자의 경우 여성이 6.2%(24명), 남성이 13.7%(53명) 등장해 남성이 2.2배 더 많이 등장했다. 지난 6월 모니터링에서도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7명이었으나 여성은 1명에 그쳤고, 고정출연자는 (성별이 지정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남성이 3배 더 많이 등장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들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주진행자 13명 중 11명의 남성은 모두 30-50대였고, 고정출연자 77명 중 30-50대 남성이 37명으로 무려 48%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위치에 '30-50대 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성비 재현이 반복된다면 프로그램을 이끄는 위치에 30-50대 남성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질적분석에서는 기존에 계속 강조해왔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유머로 삼는 행위들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어린이들의 관계맺기 방식을 로맨스로 포장하는 문제 또한 예능 모니터링 내내 지적해 온 지점이다. 로맨스 드라마의 배경음악, 배경효과 등을 삽입해 어린이들이 처음 만나서 친구를 사귀는 장면을 애정 관계처럼 연출함으로써, 이성을 연애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며 우정, 친교 등 이성 간의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SBS <골목식당>의 사례이다. 프로그램 내 유일한 여성 고정출연자가 발언할 때마다 여성 출연자가 소리 내지 않은 “히잉”, “헿”과 같은 수식어가 불필요하게 자막에 붙었다. 다른 남성 출연자가 발언할 때는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젊은 여성 출연자에게 애교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적분석이 드러내듯 프로그램을 이끄는 위치에 여성은 적은 수로 존재한다. 적은 수의 여성 진행자, 고정출연자들을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성차별적 편견이 담긴 이미지를 투영해서 그려낼 때, 여성 출연자들은 애교와 리액션을 담당하는 수동적인 위치로 고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청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미디어에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긴 내용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때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자막은 제작진의 의도대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방송 제작 시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중요하다. 방송 제작진들 스스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 성차별 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방송국 차원에서의 성인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차별과 혐오 없는 예능 콘텐츠 제작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모니터요원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⑩ MBCevery1
방송시간대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4:00-16:00 ⑥ 16:00-18:00 ⑦ 18:00-20:00 ⑧ 20:00-22:00 ⑨ 22:00-24:00 ⑩ 24:00-06:00

출연자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이름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를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안료인(가수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⑳ 주부 ㉑ 자영업자 ㉒ 운동선수 ㉓ 무직 ㉔ 모를 ㉕ 음악업계중서(캐디, 작곡가 등) ㉖ 기타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고정출연자 ④ 보조 출연자/초대손님 ⑤ 기타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차별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 모니터링 지표

성평등적 내용		성차별적 내용	
<p><b>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li> <li>-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li> <li>-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li> <li>-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li> <li>-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li> <li>-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li> </ul>		<p><b>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li> <li>- 특정 역할에서 성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li> <li>-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li> <li>-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li> </ul>	
<p><b>성희롱/성폭력 정단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li> <li>-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li> <li>-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li> </ul>	
<p><b>외모에 대한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li> <li>-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li> </ul>	
<p><b>성적대상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li> <li>-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li> </ul>	
<p><b>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li> <li>- 00녀와 같은 거부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li> </ul>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 편집인 : 양선희 | 편집 : 최동경(에디팅),유민(서울YWCA 여성운동부), 김유·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특목과정 교수) | 발행처 : 서울YWCA  
전화 : 02-3705-6069 | 팩스 : 02-3705-0020 | 홈페이지 : www.seoulwca.or.kr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기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처 : 서울YWCA 주주 : 06538 서울시중구영등포구길20